

전남 시·군 가정용 수도요금 천차만별

구례 1t당 790원 최고 곡성 233원 최저

최대 3배 차 ... 정부 지원 대책마련 절실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 간 가정용 수도요금이 최고 세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돗물의 경우 국민의 생활필수재라는 점을 감안하면 지역간 수도요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해남·완도·진도)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올해 시·도별 가정용 수도요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도내 22개 기초자치단체 중 구례의 수도요금이 1t당 790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어 ▲광양 600원 ▲여수·화순 590원 ▲완도 583원 ▲순천 580원, ▲나주·영광 560원 순이다.

반면 수도요금이 가장 싼 기초자치단체는 곡성으로 1t당 233원이었다. 수도요금이 가장 비싼 구례와 비교하면 3.4배 가량

더 싼 셈이다. 이어 ▲진도 300원 ▲무안 350원 ▲장성·함평 410원 순이다.

또 전국 기초자치단체 평균 수도요금은 1t당 526원으로, 전남지역 11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전남은 503원, 광주는 500원이며 각각 8위와 9위를 차지했다.

가정용 수도요금은 지자체의 급수조례로 결정한다. 급수조례는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방향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안을 만들고 지방물가대책위원회 등의 사전심의

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하지만 수돗물은 국민 생활에 기초적인 공공 서비스인 만큼 전국적으로 균일한 요금이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윤 의원은 “수돗물은 모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필수재다. 이런 점에서 각 지역별로 수도요금의 차이가 크게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정부가 수도요금 격차해소를 위한 보조금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해 수도요금을 균등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아리랑 부르는 위안부 할머니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1249차 정기수요집회에서 '위안부' 피해자 김원옥(가운데), 안점순(오른쪽) 할머니가 수원하모니 기타양상블팀의 반주에 맞춰 아리랑을 부르고 있다. 왼쪽은 김복동 할머니.

/연합뉴스

“수매량 늘리고 소비진작책 마련 쌀값 안정”

당정청, 희망 농민 농업진흥지역 해제 추진

당정청은 쌀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추곡 수매량을 늘리고 소비 진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과잉 생산을 막고자 희망하는 농민에 한해 보유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일명 절대농지)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청은 목표 가액인 가마당 18만8000원 유지를 달성하긴 어렵더라도 이 같은 종합대책을 조만간 발표해 가격 하락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관련, “시장격리 대책과 소비 증대 대책도 마련해야겠지만 쌀 소비가 가장 많았을 때 1인당 130kg에서 현재 63kg으로 반토막 이하로 줄어들었는데 현재 농지를 갖고 계속 쌀을 생산하는 것은 농민들한테도 유리하지 않다”고 말했다. 농지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면 공장, 물류창고, 교육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다.

이 외에도 당정청은 정기국회 과제와 관련, 노동개혁 4법, 대학구조개혁법, 자본시장법, 의료법, 지방교육정책지원특별회계법 등 기존 15개 중점 추진 방안을 비롯한 31개 법안의 회기 내 처리에 전력하기로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전남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인상 필요”

중간 용역보고회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운행중인 시내·농어촌버스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버스운송업체에서 기존 버스를 일반버스와 좌석버스로 이원화하는 방안도 제안해 전남도가 검토중이다.

전남도는 21일 “지난 20일 전남도청 왕인실에서 버스운송업체, 자동차노조, 전문가, 시·군 담당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농어촌 버스 운임·요금 검증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현재 1200원으로 일원화돼 있는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의 이원화 필요 여부 및 요금 인상안이 주로 논

의됐다. 또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요금인상에 따른 재정지원금 규모, (준)공영제 등에 대해 각계각층에서 의견도 수렴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상필 박사가 진행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2시간에 걸쳐 전남도내 시내·농어촌버스 운영과 관련 의견을 제시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토론 결과 현재의 시내·농어촌버스의 경영 상태를 감안할 때 버스운송업체의 자구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열악한 실정이라는데 공감했다”며 “적정한 요금인상, 지자체 재정지원 보전 등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준공영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목포 해양대~갯바위 구간 등 전남 14곳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 선정

목포 해양대~갯바위 구간 등 전남 지역 14개 자전거길이 행정자치부의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됐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자부가 전국 17개 광역 시·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전국 216곳의 자전거길을 추천받아 주변 관광지나 유적지·휴양지 등과 연계성·홍보스토리·안전성 등을 평가해 최종 100곳을 선정할 결과, 도내 13개 시·군의 14곳이 선정됐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다.

도내 자전거길은 목포(해양대~갯바위)·여수(송소 선착장~당두)·순천(강정 수변공원~별량 죽전마을)·광양(섬진교~남도대교)·곡성(월탄정 인종센터~섬진강 출렁다리)·구례(동해마을~월평교) 등이다.

또 강진(명동~출렁다리)·영암(용당교차로~삼호대교)·무안(몽탄대

교~남창천)·영광(백수 담동마을~법성시내)·완도(청산항~사랑길)·진도(세방낙조~청룡마을)·신안(가산 선착장~사목해수욕장~증도대교~대초리 마을) 등도 포함됐다.

이들 지역은 서·남해안의 낙조 절경, 다도해와 해상 교량을 연결하는 경관, 지역의 특색 있는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구간 등으로 다양한 자전거 여행을 통해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아름다운 자전거길 100선’에 선정된 구간에 대해 지자체·한국관광공사 등과 협력, 자전거길 관광·여행 상품을 홍보할 계획이다.

김정선 전남도 지역계획과장은 “자전거 이용자들이 명품 자전거길을 이용, 천혜의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전남도, 中 교류 강화 불구 수출액 감소

2014년 98억달러 → 지난해 73억 달러

전남도가 중국과 교류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중국 수출액은 오히려 감소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전남연구원 환경해연구센터에 따르면 전남의 전체 수출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4년 25.1%(98억3600만 달러), 지난해 24.2%(73억7800만 달러), 올 들어 2·4분기 21.4%(21억600만 달러)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 전남 대중국 수입액은 2014년 2.8%(11억5100만 달러), 2015년 4.4%(11억7800만 달러), 2016년 2·4분기 5.0%(2억5100만 달러)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6월 말 기준 전남의 대중국 주요 수출 품목은 나프타, 폴리카보네이트, 유자, 김 순으로 비중이 높았다. 중국에서 수입한 품목은 해남구조건, 무연탄,

콩나물용, 광전지 순으로 규모가 컸다.

이 기간 방한 중국인은 214만6696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36.3%가 증가했다. 이들의 입국 경로는 인천공항이 44.6%로 가장 많고, 제주공항이 31.7%, 인천항이 6.7%로 나타났다. 무안공항은 0.7%(1만5538명)에 불과했다.

전남의 주요 항구별 입국 중국인은 광양항, 여수항, 목포항 순으로 많았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취임 후 중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을 강화하며 친중국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올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가 불거지면서 지난 8월 방중 계획이 무산되고 중국 전세기 운항이 취소되는 등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이종행기자golee@kwangju.co.kr

전남도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 배용태·하승완 위촉

전남도의회 입법·정책법률고문에 배용태 목포대 교수와 하승완 변호사가 21일 각각 위촉됐다.

이들 신임 입법·정책고문은 향후 1년간 전남도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의회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 ▲자치법규 제·개정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 ▲의장으로부터 수입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가타 의회관련 입법·정책사항 등을 자문하게 된다.



배용태 교수



하승완 변호사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배 교수는 전 전남도 행정부처사를 역임했다. 법률고문인 하 변호사는 보성군수를 지낸 뒤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이종행기자 golee@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동림동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지역주택조합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 511-1141

시행 |주|에이치원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 본 홍보물이 사용된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미지였으므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수변 교통시설 및 수변 현상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 가능하며, 실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